

제 17 권 죽음

1. 죽음의 정의

출처: *Dying and Death*, Reformation Heritage Books, 24-25

저자: 크리스토퍼 보고쉬

역자: 정영진

죽음은 궁극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분리’라는 단어는 죽음을 정의하려는 우리의 미약한 시도의 핵심이다. 육체적 죽음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의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결코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또한 훨씬 더 나쁜 두 종류의 죽음을 말한다. 즉,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다. 이 두 종류의 죽음 역시 죄의 삯이다.

영적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낙원에 있는 아담이 죄에 빠졌을 때 영적 죽음은 순식간에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나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본성상 타락한 죄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요 3:7)고 말씀하셨다.

영원한 죽음은 사람의 영혼과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에 영원히 있는 것이다. 지옥은 형벌(마 25:46), 고통(막 9:44), 멸망(살후 1:9), 옥에 갇힘(유 1:6), 흑암, 근심, 그리고 고통(마 8:12)이 있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눅 16:25-26)다. 영원한 죽음, 즉 지옥으로 선고된 사람들은 불신자가 이생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조차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저주받은 자에게 부어진다(계 14:10-11). 지옥에서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히 죽어가지만 육체적으로 결코 죽지 않으며 영적으로는 영원한 죽음 아래 있다. 그들은 쉼 없이, 또 다른 기회 없이, 존재의 소멸 없이, 그리고 끝없이(사 33:14; 마 25:41; 유 1:8) 지옥에 있다. 참으로, “죄의 삯은 사망”이다. 육체적 사망, 영적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다.

2. 죽음과 불멸

출처: *Great Doctrines of the Bible*, © 2003 by Bethan Lloyd-Jones, 58-67

저자: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1899-1981): 강해 설교자 및 저자, 영국 웨일스 카디프 출신

역자: 박기철

성경은 죽음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첫째로, 죽음은 단지 존재가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죽음은 그저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말하길 죽음은 존재의 멸절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존재하다가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끝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사실상 내가 보여줄 성경의 가르침은 그와 정반대다. 성경 저자들은 죽음은 존재의 멸절이 아니라고 매우 강조하고 또 단언한다.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단순히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 이생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긴밀하게 연합되어 하나를 이룬다. 내 영혼은 육체 안에서 육체를 통해 기능한다.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육체를 떠난다. 육체는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이며 내 영혼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일 뿐, 결코 존재의 멸절이 아니다.

지금부터 나는 여러 성경 본문들을 보여줄 것인데, 그 중 이 문제 전체를 매듭지어 주는 아주 중요한 두 본문이 있다. 첫째는 누가복음 12장 4-5절이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신다. 몸을 죽일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두려워해야 할 분은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도 분명히 같은 내용을 가르친다. 부자가 죽고, 그의 문 앞에 있던 불쌍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그들 모두 자신의 육체를 두고 떠나지만 그들의 영혼은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인 정의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긴다. 우리는 왜 죽는가?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인기 있는 철학적 견해는 죽음은 삶에 포함된 것으로서 생애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생명이 탄생하면 그것은 시작하고 싹트며 자라난다. 생명이 발전하여 꽃이 피고 성숙해지며 완전히 성숙한 후에는 쇠하기 시작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생명은 성장하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생명이 정상에 이르면 정상의 다른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견해에 따르면, 생명이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죽음의 배아, 즉 죽음의 씨앗도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삶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은 삶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이다.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왔다. 창

세기 2장 17절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죽고 또 죽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도 정확히 같은 가르침이 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의 로마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음이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12절). 이처럼 죽음은 죄로 인해 들어왔다.

야고보서에도 같은 가르침이 있는데 또 하나의 매우 흥미로운 진술이 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4-15).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은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 들어왔다는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사할이 걸린 성경의 원리로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가르침을 지배하는 인기 있는 현대 철학과 배치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은 무엇이며,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임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많은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 그들은 말하길 “좋아요. 그건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제 남은 문제는 이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하는 거죠?”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건 받아들이어요. 하지만 결국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의 죄는 사해졌고,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되는 건가요?”

자, 이것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인데, 몇 가지로 세분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결과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주장이 사이비종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기 있는 신유 운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근거로 마태복음 8장 17절을 인용하면서 치유가 속죄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질병을 담당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의 모든 결과들이 사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죄로 인해 질병과 죽음이 해결되었다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속죄가 그런 식으로 죽음을 해결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이다.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독교 신자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죽는다. 우리는 “몸의 구속”(롬 8:23)을 기다리는데, 이는 몸이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들은 모두 같은 범주에 속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질병과 죽음과 죄의 영향이 지속되도록 기꺼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셨다면 우리를 즉시 완전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고, 사망과 모든 질병을 즉시 없애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고 확고하다. 속죄가 죄의 모든 결과를 해결했다고 말하는 것은 질병 및 죽음과 관련하여 속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죄의 결과가 즉시 해결되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아무튼 성화의 과정의 일부로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영향 아래 남겨진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일부인데(히 12:3-13), 이를 통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67절)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성찬과 관련하여 같은 가르침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었다(30절). 질병은 하나님의 훈육 과정의 일부다. 물론 모든 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또한 죽음도 질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은 틀림없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되어 왔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도취된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기 시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곤 한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이 아프거나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죽음을 상기함으로써 그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을 이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을 사용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급하게 덧붙이고 싶은 것은 비록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죽음 아래에 있지만, 죽음에 대한 견해는 불신자들과 전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위대한 진술에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맞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56-57절). 이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가볍고 경솔하게 이야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가 율법을 만족시키셨다는 사실 때문에 사망의 쏘는 것이 제거되었음을 안다. 우리는 또한 죽음이 '유익'이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안다.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빌 1:21-23)라고 말한다. 한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 자체의 문제를 살펴보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다음 질문은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멸이라는 개념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종종 치열하게 토론되어 왔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가? 영혼 불멸은 유전되는 것이며 본유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 대단히 많은 책이 저술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그 책들은 대부분의 지면을 철학적 논의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을 따분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은 '불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

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명백한 진술은 없더라도 성경을 편견 없이 읽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 어디서나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가령 누군가가 영혼 불멸에 대해 당신에게 의심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결코 의문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영혼 불멸의 믿음에 반대하는 주장을 살펴보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진술이다. 이 구절은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하신다고 명백하게 말해 준다”라고 말한다. 자, 이 구절은 완벽하게 진실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불멸하신다. 하지만 이 말이 오직 하나님께만 사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불멸이라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본래부터 불멸의 존재라거나 스스로 불멸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혼 불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불멸이라는 선물을 인간의 영혼에 주기로 선택하셨다고 대답한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와 소유로서의 불멸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들의 영혼에 선물로 주기로 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자, 다른 논증들도 좀 더 살펴보자.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암시와 가르침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희미하다고 말한다. 전도서 저자는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전 9:4)고 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이 마지막이고 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구약이 죽음은 단지 끝임을 가르치고 있는 듯하다고 말한다.

이 논증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성경에는 일종의 점진적 계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령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주의 계시가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리의 진전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일에 대한 암시가 주어지고, 다음에는 좀 더 분명해지다가 더욱 더 자세해지고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나타난다. 성경은 부활에 의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딤후 1:10)고 말한다. 하지만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함은 이전부터 있었다. 이 사실에 대한 암시와 희미한 묘사가 있었다. 그리스도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광명 속에 드러내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불완전한 상태였다. 단지 암시만이 있었기에 구약의 가르침은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은 죽은 자들이 가는 스올이라는 장소가 있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한다. 구약은 죽음은 끝이 아니기에 죽은 자들이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가르친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나 스올(헬라어로 하데스)로 내려간다.

그뿐 아니라 구약의 몇몇 구절은 구체적으로 영혼의 불멸을 가르친다. 시편 16편 10-11절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총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한다. 그 다음 시편인 17편 15절에서도 불멸이라는 개념이 매우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 영혼의 불멸에 대해 이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한 진술은 없을 것이다. 시편 16편과 17편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된다.

욥기에서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 19:25-26)라고 말한다. 또한 시편 73편에서는 불멸에 대한 믿음을 확인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땅 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으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24절)고 말한다. 바로 이것이 영혼 불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다. 구약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그 증거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증거에 덧붙여 내게 있어서 늘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죽은 자의 영혼과의 접촉을 금한다는 사실이다. 이 금지령은 소위 엔돌의 신점한 여인과 관련된 것으로 그 여인은 비참했던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부탁을 받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올 수 있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하는 것과 강신술을 금지하는 많은 가르침이 있다. 이러한 금지 자체가 영혼 불멸을 지지하는 강력한 논증이다. 사람들의 영혼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존속하지 않는다면 그런 금지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강력한 가르침을 살펴보자. 이미 인용한 바 있는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는 몸을 죽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몸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사라질지 모르지만 영혼은 계속 남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우리 주님과 말했던 사건도 영혼 불멸의 증거가 된다.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마 17:1-8).

또한 우리 주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마 22:32)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주목하자. 한 교활한 사람이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영혼의 불멸과 죽음 이후 생명의 존속에 대한 문제로 질문하고 있었다. 이 교묘한 질문을 받으신 주님은 위와 같이 대답하신 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32절).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신 것이다.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부자 역시 죽었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그는 생각하고 바라보며 근심한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이다. 이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는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증거다.

~~~~~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는 그의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 이로 인해 신자들은 그 누구도 죄에 대한 형벌로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하실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래로 죽음은 그리스도에 의해 폐기되고 효력이 사라졌기에 더 이상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법적인 형벌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죽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육체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부패함이 없고 영광스러운 육체가 되기 위해 그전에 신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육체는 죽음과 무덤이라는 용광로를 지나 정결하게 되면서 미래의 지복을 누릴 영광스런 몸으로 준비된다. -찰스 스펔전

### 3. 마지막 원수인 사망

출처: 1876년 12월 17일 주일 아침, 영국 뉴잉턴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에서 전한 설교

저자: 찰스 스펔전 (1834-1892) : 영국의 영향력 있는 침례교 목사. 영국 에섹스 켈비돈 출생.

역자: 김선형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26)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사망은 가장 무서운 원수인 죄의 자식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롬 5:12). 자, 사망은 분명히 타락의 결과로서 인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사망은 인간이 타락하던 그 암울한 날에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는 우리의 숙적이자 배신자인 사탄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사망을 인류의 분명한 원수로 간주해야 한다.

사망은 이 세상에서 외인이다. 타락하기 전의 세상에는 사망이 없었다. 그러나 사망은 무단으로 침입하여 들어와 모든 것을 망쳐 놓았다. 사망은 ‘위대한 목자’에 속하지 않으며, 단지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 늑대다. 현재의 창조세계에 관한한, 사망은 하나님의 초청받은 손님이 아니라 잔치를 망치려고 들어온 침입자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사탄과 죄가 낙원의 큰 축제에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으나 결코 사망까지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눈먼 눈으로도 마른 뼈다귀로부터 잔인한 원수를 볼 수 있다. 들판의 짐승 떼에게 닥치는 사자처럼, 들의 꽃들에게 임하는 낫처럼, 숲의 메마른 잎사귀에 부는 바람처럼, 사망은 인간에게 갑자기 닥친다. 그들은 내적 본능으로 사망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그들의 양심이 그것이 죄의 자식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이다.

**사망이 원수라 불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적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원수는 어떤 목적으로 다가와 해집고 좌절시키고 파괴하는가? 사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며, 그의 거룩한 손길로 놀랍도록 창조된 신체의 구조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죽음은 이 멋진 자수(刺繡)를 지렁이로 가득한 무덤에 던져 놓으며, 그 맹렬한 지렁이 군대에게 “노략한 채색 옷과 수놓은 채색 옷”(삿 5:30)을 나누어 준다. 그러면 그 군대는 가차 없이 그 전리품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우리의 몸이라는 건물은 보기에는 좋은 집이지만 파괴자 죽음은 창문을 캄캄하게 하고, 기둥을 흔들고, 문들을 닫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멈추게 한다. 그러면 노래하는 여인은 힘을 잃고 힘 센 남자는 약해진다. 이런 파괴자는 아무리 지혜와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는다. 그것은 은 줄도 풀고 금 그릇도 깨뜨린다(전 12:6). 아, 그 값비싼 항아리가 샘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우물가에서 잘 작동하던 도르래는 산산조각이 난다. 죽음은 생명의 왕국에 들어온 사나운 침입자다. 죽음이 오면 건강한 나무들이 쓰러지고 모든 우물이 끓고 좋은 땅도 돌무더기로 변한다. 죽음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라. 어떻게 그의 아름다움이 재가 되고 그의 단정함은 부패하게 되는지를! 확실히 그 원수는 이 같은 일을 한다(마 13:28).

보라, 나의 형제들이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죽음의 길에 서 있다. 무덤 없는 들판

이 어디 있는가? 묘지 없는 도시가 어디 있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무덤 없는 곳을 찾을 수 있겠는가? 마치 모래사장 아래 지렁이가 무더기로 있듯이, 너 땅이여, 풀 자란 언덕 아래 지난 세대의 시체들이 묻혀 있구나. 그리고 너 바다여, 너마저 죽은 자들로 가득하구나! 땅은 온통 죽은 자로 가득하고 무덤은 시체로 가득하다. 웅장한 해저 동굴이여, 심지어 너의 동굴 속으로 죽은 자의 사체가 던져진다. 파도는 인간의 시체로 더럽혀졌고 동굴 바닥은 뼈로 가득 쌓여 있다. 우리의 원수 사망은 칼과 불이 인류를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거침없이 행군하고 있다. 코트족, 훈족, 타타르족도 모든 숨 쉬는 자들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죽일 수 없었다. 그러나 사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을 죽인다. 사망은 모든 곳에서 가정의 기쁨을 시들게 하고 슬픔과 탄식을 야기한다. 태양이 보이는 모든 땅에서 사망은 사람들의 눈을 눈물로 가득 채운다. 유족들의 눈물, 미망인의 울부짖음, 그리고 고아의 신음소리 등, 이런 것들은 사망의 전쟁곡이며, 사망은 그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가장 위대한 정복자들은 사망의 도살자들일뿐이며, 도축 시장에서 일하는 떠돌이 도살자들이다. 전쟁이란 사망이 개최한 축제며 보통 때보다 좀 더 빠르게 그 사냥감을 집어삼킬 뿐이다.

**사망은 그 화살을 피한 우리 중 몇몇에게 원수의 행동을 보인다.** 최근 무덤가에 사랑하는 이들을 묻은 사람은 사망이란 원수가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다. 사망은 우리로부터 친구를, 우리 품에서 아이를 데려갔다. 울어도 소용없다. 집안의 기둥 같은 이를 넘어뜨리고 가정의 기쁨이었던 이를 낚아채 간다. 어머니의 품에서 찢겨나 세상을 떠난 어린아이의 상실은 그 어머니의 심금을 부수고, 아버지 곁에서 한창 피어나던 청년의 사망은 부모의 가장 기쁜 소망을 짓밟는다. 사망은 젊은이에게도 연민이 없고 늙은이에게도 자비가 없다. 그는 선한 자와 아름다운 자에게도 아무런 연민이 없다. 그의 큰 낮은 향기로운 꽃이든 해로운 잡초든 무조건 잘라낸다. 그는 우리의 정원에 침입해 들어와서 백합꽃을 짓밟고, 발의 장미들을 흠어버린다. 그렇다. 사망은 구석에 심겨 잎사귀 밑으로 가려진 수수한 꽃들마저 찾아낸다. 사망은 꽃의 향기도 개의치 않고 타오르는 숨결로 꽃들을 시들게 한다. 너 아버지 없는 아이여, 사망은 분명 너의 원수며, 너는 보호자 없는 잔인한 세상에서 무자비한 폭풍과 싸우려고 남겨졌다. 오 과부여, 사망은 너의 원수다. 네 생명의 빛이 떠났으니, 이는 네 눈의 사랑이 순식간에 쓰러졌기 때문이다. 남편이여, 사망은 네 원수다. 네 집은 황량해졌고, 아이들은 죽음이 빼앗아간 어머니 때문에 울고 있다.

사망은 우리 모두의 원수다.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어떤 가정이 죽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은 하나님의 집을 침범해서 사역자들까지 사자(死者) 안에 포함시켜 살아 있는 자들의 원수가 된다. 교회 안에 가장 소중한 사역자들이 공격을 받아 쓰러짐으로 늘 보살피던 눈이 어두워지고 가르치던 혀는 침묵한다. 이에 교회는 슬퍼한다. 그러나 사망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지! 사망은 성실하고 활동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이들조차 앗아간다. 기도예 강하고, 사랑이 많고, 삶의 모범이 되는 이들조차 사역 중에 쓰러진다. 이에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그들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교회를 뒤로 남겨둔다. 만일 주께서 어떤 소중한 목회자를 사망에게 넘겨주겠다고 경고한다면 그 목회자를 아끼는 영혼들은 슬픔으로 가득한 채 사망을 최악의 원수로 삼고 주께 간청하며 제발 그를 살려 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심지어 죽어가는 자들도 사망을 자기들의 원수로 간주할 것이다. 내 말은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들처럼 하늘로 올라가 지금 영광의 왕을 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앞에 둔 자들을 의미한다. 사망은 그들의 두려워 떠는 육신에게 원수다. 이는 극심한 고통에 있거나 정신이상이거나 혹은 지나친 영웅심이 아니라면 사망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창조주가 지혜롭게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가 영혼을 사랑하도록 했고 가능한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살기를 바랐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은 자기보존에 대한 바람이 없었을 것이고 자살로 인류는 멸망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가장 깊은 본성에는 목숨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라도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담대하게 투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괴할 것들을 피한다. 이처럼 인간의 본능은 사망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은 맨 정신으로 의도적으로 자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사망을 두려워하는 본능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끔찍하고 가장 저주스런 범죄를 짓는 것을 막는데 유용한 도움을 준다.

선한 자에게조차 죽음은 원수로 다가온다. 사망은 우리를 무척이나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런 무서운 전령들과 음울한 경호원들을 대동한다. 그들은 죽음의 양상에 먼지만큼의 아름다움도 가미하지 못한다. 사망은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며, 한숨과 눈물을 가져온다. 구름과 어둠이 사망을 둘러싸고 먼지로 가득한 대기가 그가 다가가는 사람들을 억압하며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뺨속까지 오싹하게 만든다. 그가 창백한 말에 올라타면 그의 말이 달는 땅은 곧 사막이 된다. 그 끔찍한 말발굽 소리에 벌레가 깨어나 죽은 자를 갉아먹는다. 우리가 다른 위대한 진리를 잊고 이 끔찍한 사실만 기억할 때, 사망은 우리에게 공포의 왕이 된다. 그로 인해 마음은 병들고 삶의 고삐는 풀린다.

사망은 우리 몸의 원수다. 그가 우리 몸에 무슨 짓을 하는가? 나는 사망이 궁극적으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사망 그 자체가 코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움보다는 비통이다. 그는 사람의 눈에서 빛을, 귀에서는 청각을, 손에서는 생동감을, 머리에서는 생각을 가져가기 위해 다가온다. 그는 살아 있는 사람을 썩은 시체 덩어리로 전락시키고 사랑하는 형제와 친구의 모습을 썩은 상태로 저하시킴으로 그를 사랑하던 자마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창 23:4)라고 부르짖게 만든다. 사망, 너 죄의 자식이며, 그리스도가 너를 놀랍게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너 자체는 육체와 피로 전율하는 이들에게는 원수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망이 여자의 모든 자손을 살인한 자며, 너 사망은 민족들의 피로도 도저히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인간 먹이로 굶주려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수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면, 그의 몇 가지 특징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 원수며, 또한 모든 인간의 원수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된다고 마음을 먹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또한 사망의 부름을 받지 않고 백발이 되도록 겨울의 거센 서리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그 철의 사나이는 사망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히 9:27). 가장 강한 사람조차 늙어가는 동안 젊음을 되찾을 영생의 묘약이 없고, 가장 부유한 왕자라도 사망을 매수할 만한 비용이 없다. 오 왕위의 군주여, 당신은 왕의 홀이나 삼이 다를 바 없는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다.

오 용맹한 자여, 칼이나 삽이나 다를 바 없이 금속으로 여겨지는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다. 왕자가 벌레와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진리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창 3:19).

사망은 또한 간교한 원수다. 사망은 모든 곳에 숨어 있고 심지어 가장 무해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도 잠복해 있다. 누가 과연 사망이 매복 공격을 하지 못할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는 국내외에서 우리를 마주하고, 식탁에서도 공격을 가하며, 마시는 우물물에 독을 넣는다. 그는 거리에서도 노락질하며 침대에서도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는 바다에서는 폭풍을 타고 오며, 우리가 단단한 땅을 걸어갈 때도 우리와 함께 걷는다. 오 죽음여, 어디로 날아가야 너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알프스 정상에서도 사람들은 무덤으로 떨어지는구나. 지구의 깊은 곳에서 광부가 귀한 광석을 찾기 위해 내려갈 때도 너는 그곳에서 수많은 값진 생명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사망은 간교한 원수이고 발소리 없이 뜻밖의 순간에 우리의 발꿈치를 문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든지 그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원수다.** 때가 되면 그 누구도 그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새처럼 우리 모두는 이 사냥꾼의 그물 속으로 날아 들어들 것이다. 그의 거대한 그물 안으로 큰 바다 속의 모든 물고기도 날이 밝으면 잡힐 것이다. 태양이 지고, 지평선 아래로 한밤중 별들이 마침내 떨어질 때, 파도가 다시 바다로 가라앉을 때, 혹은 거품이 터질 때, 우리 모두는 일찍 혹은 늦게 종말을 맞이한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사전 예고 없이 죽는다. 입술로 시편을 읊조리다가 죽고, 일상 업무에 종사하다가 인생을 정산하기 위해 부름을 받는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조간신문에서 사업하는 한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그때 직장에 가기 위해 신을 신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웃으며 자신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죽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앞으로 쓰러졌고 송장이 되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면 것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을 흔히 본다. 이처럼 사망은 무시하거나 경하게 여길 수 있는 원수가 아니다. 우리가 그의 모든 특징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주께서 멸한 이 음울한 원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

죽는다는 것은 엄숙한 일이다. 죽음이란 가까운 두 친구, 즉 영혼과 육체의 엄숙한 이별이다. 기억하라. 만일 사람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모든 준비들은 헛될 뿐이다. 어떤 사람이 정작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자녀들, 일가친척, 혹은 친구들을 위해 이것저것을 준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망이 당신을 떠나자마자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만일 죽음을 예상하고 준비하기도 전에 죽음이 당신을 엄습한다면, 그 죽음은 당신에게 더욱 끔찍할 것이다. 죽음은 당신의 얼굴을 일그러뜨릴 것이며 생각을 떨게 할 것이고 허리의 힘이 풀리게 하고, 무릎은 두려움으로 서로 부딪힐 것이다. 오, 가장 큰 업적을 이루고자 할 때 죽음을 만난 자들은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의 지옥을 느끼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죽을 때 행복하기를 원

한다면,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히 복된 상태에 있으려면 죽음을 준비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라.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쌓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해 정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라. 당신이 날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당신 자신의 의에 대해서 죽는지 돌아보라. 당신의 양심은 항상 깨어 있고, 지금도 민감하게 말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요, 참된 주인인지 돌아보라. 주와 당신의 영혼 사이에 모든 것이 정상인지 살피라. 열매 맺는 삶, 충실한 삶, 깨어 있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리하면 죽는 날이 당신에게 있어서, 마치 남편에게는 수확의 날, 죄수에게는 구원의 날, 왕에게는 대관의 날, 신부에게는 결혼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당신의 임종의 날은 승리와 영예, 자유와 위로, 휴식과 만족의 날이 될 것이다. 주 예수님이 당신의 입에 꿀과 같고, 코에는 향료와 같고, 귀에는 음악과 같고, 마음에는 희년과 같이 될 것이다. — 토마스 브룩스

4. 죽음의 실체

출처: *Dying and Death*, Reformation Heritage Books, 9-18.

저자: 크리스토퍼 보고쉬: 간호사, 목회상담가,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어거스틴 소재 성공회 부활교회 부목사

역자: 아브라함 장

현대 의학에서는 흔히 죽음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인간 존재의 일부라는 견해가 권장된다. 죽어감(dying)은 삶과 병행하면서 나란히 진행되는 과정이며, 현대 의학에서 육체의 죽음(death)은 생명의 자연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필연적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의학 문헌을 보면 종종 죽어감과 죽음은 임신이나 출생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고치를 뚫고 나온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과정 속에 존재하는 한 단계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해석은 19세기 후반에 대두된 진화생물학의 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육체의 죽어감과 죽음 사이에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둘은 생명의 순환이라는 더 큰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생존법칙의 산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임종을 맞게 된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자신을 위한 맞춤형 세계로의 이동이라는 낙관적 사고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환영한다.

이렇게 자연주의적, 진화론적 이론들은 현대 의학에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서도 막강한 우세를 나타냈다. 오늘날 생명이 멈추고 사망이 시작되는 순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사들은 ‘뇌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뇌사란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3파운드 무게의 생화학적 조직 내부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인정되는 지점이다.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에 따르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고 뇌와 신체 간에 통합적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며, 생명 현상인 신체 내 세포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사망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 순간까지 남아있는 생명의 징후들은 단지 자연의 법칙에 따른 활동으로서 인간의 지속적 생존을 전체적으로 지탱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가진 이런 사고와는 다르게, 성경에 입각한 의학 분야에서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에 급급한 생화학 물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한다. 즉, 죽어감과 죽음은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일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선이 존재하며 육체적으로도 생명과 죽음은 완전히 구별된다는 견해다.

육체의 죽어감과 죽음에 관한 사실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육체의 죽음에 대한 참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틀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 이해의 틀 안에서 과학적 발견들을 한층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선물이라고 가르쳐준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인간 생명의 본질적 요소는 ‘생기’며, 이 요소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성질이다(창 7:21-22). 아울러 성경은 ‘피’를 생명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보고 있으며, 인간 혹은 짐승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창 9:4-5, 레 17:11, 14; 신 12:33). 결국 ‘피’는 폭력과 죽음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죽음은 그 자체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창 2:17), 이에 관한 교리는

차후에 이어지는 글에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심판에 대해 이처럼 선언하셨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 그러므로 생명은 몸 안의 생기와 피에 있으며, 죽음은 몸이 분해되어 하나님이 몸을 만들었던 원재료인 흙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의학에서는 또한 심폐활동(호흡과 혈액)의 종식과 육체가 먼지로 부패하는 과정의 시작을 인간의 육체적 죽음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육체적 생명과 죽음의 상태를 구분해 주는 관찰 가능한 경계가 설정된다. 심장과 폐, 체내 순환계가 몸 전체에 산소를 분배하는 작용을 멈추게 되면, 몸 안에서는 유산소 활동(산소 공급으로 작동되는)이 무산소 활동(산소 공급 없이 작동되는)으로 바뀌게 되는데, 곧 부패 또는 해체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신체가 부패하는 동안 자가 융해 혹은 자가 소화 과정이 수반된다. 체온이 지속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사강(사지가 경직되는 현상)이 수반된다. 대략 나흘 후면 미생물에 의한 부패가 시작된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은 무덤 안에 사흘 동안 머무셨으므로 부패되지 않았으나(시 16:10, 행 2:27), 나사로는 나흘이 지나 부패가 진행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요 11:39). 부패 과정에서 신체 조직이 썩으면서 악취를 풍기는 메탄, 황화수소, 암모니아 가스가 방출되고, 몸뚱이는 액화되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 하신 말씀처럼 몸 전체가 녹거나 해체되고 만다. 그런데 인간의 몸의 죽음은 단순히 체내 세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시적 세계로 들어가 보면 지금도 우리 몸 안에서는 세포들이 끊임 없이 죽어가고 있다. 또 몸의 죽음은 체내의 어떤 장기의 죽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죽음은 심폐 활동의 체계적 교란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서 산소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생명 유지 과정들이 흙으로 부패되는 과정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일반적으로 ‘뇌사’라고 불리는, 측정 가능한 뇌 활동의 종단을 사람의 죽음으로 확정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과 기본적인 과학적 이해에서의 죽음은 모두 호흡의 종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인공호흡기의 발명으로 이러한 정의가 모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반응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에서는 아무런 뇌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나 인공호흡기를 통해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은 가능하다. 이처럼 기계로 유지되는 과정을 통해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혈액을 심장에 공급함으로써 그것이 계속 뛰도록 하고, 그러면 혈액은 몸 전체로 순환하게 된다. 심장은 뇌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 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뇌, 더 정확히 말하면 뇌간에서 오는 자극이 필요하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해 생리적인 과정에서 필수적 단계를 건너뛰게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무반응의 환자에게서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내고 호흡이 멈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신, 의학계는 심장박동이 끝난 직후 죽음을 확증하기 위한 일환으로 뇌사 기준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적 조치에 의해 ‘뇌사’를 당한 기증자들로부터 건강한 장기를 조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죽음을 정의하게 되면 적어도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뇌사’라는 것이 종종 모호한 상태로 발생하여 그에 대한 판단이 어설프게 내려진다는 점이다. 뇌가 ‘죽은’ 상태라고 간주되려면 그 활동이 어느 정도로 멈춰야 하는가? 심장이 계속 뛰는 상태와는 별도로 뇌와 일부 신체 사이에 어느 정도의 활동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와 같이 뇌사를 ‘뇌의 모든 부분이 비가역적으로 기능을 정지한 상태’라고 판정하는 기준에 의거할 때 그 뇌가 정말로 죽은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외과의사가 ‘뇌사’ 판정을 받은 장기 기증자의 몸에 칼을 대면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하면서, 그때까지도 뇌와 신체 장기 사이의 생리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을 따라 발생하는 심장에 대한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다. 시상하부는 뇌의 한 부분이고 뇌하수체는 뇌의 밑 부분에 있는 체내 구조이며, 부신은 체내 신장의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리적인 경로를 통해 심박수와 혈압의 조절이 이뤄진다.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손에 넣기 위한 목적을 위해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의 몸을 종식시키는 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뇌사’라는 기준은 죽음에 대한 위험한 정의가 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생명이 세포 수준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뇌의 활동에 의존하여 규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생명은 임신과 함께 시작된다고 믿으면서 뇌사를 죽음의 정의로 유효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런 사람은 일관성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경계와 뇌는 임신 후 5주에서 6주가 지나야 비로소 발달되기 때문이다.

성경적 결론: 성경적 이해의 틀 안에서 의학을 이해하게 되면 육체의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측면도 아니며 그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소도 아니다. 또한 뇌사를 기준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규정하는 시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불가지론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고후 5:10-11). “우리는 알므로...사람들을 권면한다.” 무엇이 알리어졌다는 말일까? 모든 인생의 심판장이신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 행한 모든 생각과 말, 행동에 대해 합당한 이유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몸과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불가지론적인 현대사상과 현대 의학이 부추긴 헛된 희망과는 정반대로 사실 몸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시작이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달력에 예정된 심판의 날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며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이다(고후 5: 10). 죽음은 원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을 이기셨으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들을 괴롭히는 그 사망의 쏘는 것과 권능을 멸하셨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사망을 멸하심으로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모든 인간들을 그분의 심판대 앞으로 소환하실 것이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참된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들은 그분께 인정받게 되며 하늘나라의 영광과 생명안으로 영접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계속 죄의 길로 행한 자들은 그분에게 정죄를 당하게 되어 참혹한 어둠과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인간의 미래다. 불가지론자들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확실히 할 수 없는 신비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을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진실되고 믿을 만한 서술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성경은 불가지론 및 현대 의학의 실수들을 드러내고 반박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죽음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의 정체를 밝힌다. 또한 성경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주시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는 이들에게 희망을 더한다.

5.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출처: *Memoir and Remains of the Rev. Robert Murray M'Cheyne* (Edinburgh;

London: Oliphant Anderson & Ferrier, 1894), 448-451;

저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Robert Murray M'Cheyne) (1813-1843):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출생.

역자: 김혜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계 14:13).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에는 놀라운 두 가지가 있다. (1) **그 말씀은 성령에 의해 외쳐지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계 14:13). 요한의 눈은 1절에 언급된 경이로운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있고, 14만 4천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갑작스레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계 14:13)라고 말하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라고 하셨다.

증인 둘의 증언은 참되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 여기에 두 증인이 계신다. 만물의 아버지와 보혜사 성령께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라고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들 중 누군가는 죽음을 생각할 때 떠는가? 죽음이 당신을 무너뜨릴 준비가 된, 끔찍한 화살을 든 괴물로 보이는가? 여기에 사망이 그의 쏘는 것을 잃었고 사망이 그의 승리를 잃었음을 선언하는(고전 15:55) 다정하고 복된 두 증인이 있다. 들으라, 그리하면 죽음을 향해 질색하는 찌푸림은 사라지고 골짜기는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성부와 성령은 함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다.

(2) **“기록하라”**. 무엇이든 기록된 것은 더 견고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보다 부패가 덜하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 위에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다.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을 건너는 날에 그들에게 큰 돌을 세우고 회반죽을 칠하고 그 위에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 또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가 떠도는 전통이 아닌 영원한 성경을 갖도록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예언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고, 사도들에게 그들의 복음과 서신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이유로, 옴은 그의 말이 기록되기를 원하였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첩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옴 19:23-25). 이 말은 옴의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말들 중 하나다. 가장 암울한 시간에 풀이 죽은 신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인 것이다. 같은 이유로 천국에서 들리는 음성은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다. 듣기만 하지 말고 쓰라, 책에 기록하라, 돌에 첩필과 납으로 영원히 새기라고 하신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가치를 배우라. 그것은 금언(金言)이다. 말씀의 모든 음절에는 금(金)이 있다. 그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다(시 19:10).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귀하다. 당신의 마음 속 깊이 기록하라.

그 말씀은 당신의 삶을 엄숙하게 하며 당신이 헛된 모습에 이끌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유혹의 노래들을 불편하고 시끄럽게 여기게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은 역경의 시간에 당신을 달콤하게 달래줄 것이다. 그 말씀은 사망으로부터 그 쏘는 것을 제거할 것이며 무덤으로부터 그 승리를 제거할 것이다. 기록하라,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하라.

이제, 이 말씀 자체를 생각해보라. (1)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은 “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 하신다. 인간에게는 사물의 겉이 보이듯, 세상은 감각으로 사물을 판단한다. 하나님은 사물을 속 안에 있는 참 속성으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사물을 실제 그대로 보신다. 세상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전 9:4)라고 말한다. 세상은 아침에 싱싱하게 피어난 꽃과 같은 가족들을 바라본다. 그들의 뺨은 건강의 꽃으로 덮여있고, 그들의 발걸음은 젊음의 탄성(彈性)에 감겨져 있으며, 그들은 부귀와 영화를 휘두르며 밝은 여름의 나날들이 그들 앞에 펼쳐진다. 세상은 그들을 보며 “저기에 행복한 영혼이 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몇이 근래에 머물렀던 어두운 방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하나님은 죽음의 웅대한 창백한 얼굴, 긴 병으로 인해 쇠약해진 뺨, 죽음의 빛이 역력한 눈, 가슴에 붙은 뻣뻣한 손, 주위에서 울고 있는 친구들을 가리키시며 우리의 귀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속삭이신다.

아,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잠시 생각해보라. 하나님과 당신 중 누가 가장 잘 아는가? 결국 누가 옳은 길에 있을까? 아, 당신은 얼마나 헛된 영광으로 살아가는가! “헛된 일로 소란하며”(시 39:6)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20).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때때로 “산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것, 은혜의 보좌에 자주 나아가는 것, 끊임없는 찬양의 향을 태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전파된 복음을 듣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 씨름하고 달리며 싸우는 것조차도 달콤하다! 여전히 하나님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곳에 하나님의 미소가 있어도 행복한데, 어둠의 구름이 없는 그곳에서 주의 미소를 볼 때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 이곳에서 주님의 자라나는 밀알이 되는 것도 달콤한데, 주님의 곳간에 모여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휘장 안에 닳을 두는 것도 달콤한데, 어둠이 임할 수 없는 그곳에 있을 때는 얼마나 더 좋을까! “주의 앞에는 풍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1). 예수님도 이것을 느끼셨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2) 모든 죽는 자가 아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시 90:5). 매일 7만 명이 죽는다. 매 분마다 약 50명씩, 거의 1초에 한명씩 죽는다. 인생은 마치 인간으로 만들어진 시냇물과 같아서 밀려들어오는 인생이 있고 벼랑 끝으로 떨어져 영원으로 흘러가는 영혼들이 있다. 이 모든 이들이 다 복을 받는가? 아, 아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영원한 세계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수많은 인간들 중 오직 작은 무리만 예수님을 절실히 믿었다. “생명

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4). 죽은 자 모두가 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죽음에는 복이 없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은 미완성의 영원으로 돌진한다. 당신은 그들의 시신을 멋진 관에 두어도 좋다. 당신은 그들의 이름을 관 뚜껑에 은으로 찍어내도 좋다. 엄숙하게 검은 정장을 입고 차림이 단정한 조문객들을 데려가도 좋다. 당신은 관을 무덤에 천천히 묻어도 좋다. 그 위에 푸른 잔디를 뿌려도 좋다. 당신은 그 위에 달달한 꽃들을 두어도 좋다. 당신은 흰 돌을 잘라 그들을 기념하는 부드러운 묘비명을 새겨도 좋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저주받은 영혼의 장례식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저주’를 기록하신 곳에 당신이 축복을 기록할 수는 없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고려하라. (1) 그 말씀의 뜻은 그들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이다.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시작이 있다. 죽음으로 복을 받는 모든 이들은 회심을 했다. 당신은 이 말을 싫어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진실이다. 그들은 깨어났다. 그들은 흐느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즉, 그들은 주 하나님을 찾으면서 흐느끼 울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의 길에 있는 부패하고 무력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보았다. 그들은 아기가 되었다. 주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을 알리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요 6:35),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그들은 믿었고 행복했다. 그들은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들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는 그들이 주님 안에 있는 시작이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당신은 이런 시작이 있었는가? 당신은 회심(중생)을 겪어 그리스도 안으로 합쳐졌는가? 그것이 어떻게 불리든, 당신은 그것을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있었는가? 어떤 이들은, “모른다”라고 말한다. 인생의 어느 때라도 당신이 물에 빠진 적이 있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당신은 죽을 뻔한 그 시간까지도 기억할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려져 왔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참으로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쉽게 기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의 죄 안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에 당신이 올 수가 없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3, 5).

(2) 견인이 암시되어 있다. 가지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니다. 많은 가지들이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것들은 모두 썩은 가지들이다. 그러므로 유혹이나 시험이나 핍박을 당할 때, 많은 거짓 선생들이 떠나게 된다. 믿는 자처럼 보였던 많은 이들이 돌아갔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걸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고,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갔고 더는 예수님과 함께 걸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도 그러하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의심할 여지없이 회심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잘 시작하면서 제대로 할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이 오면 떨어져버릴 것이다. 그들은 죽어서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 내가 모든 임종 중에서, 거짓 신자들의 임종을 보지 않기를! 나는 그런 거짓 신자들을 지금까지 보았지만 다시는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사후에 복을 받지 못한다. 썩은 가지들은 불꽃 속에서 더욱 맹렬하게 탈 것이다. 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척 삶을 보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기회를 잃었다면

당신이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라!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알았고, 그렇게 그분과 가까이 있었지만, 당신은 그분을 찾지 않았기에 당신의 지옥은 더 깊고, 더 검고, 더 뜨거울 것이다. 다른 이들이 주를 떠날 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끝까지 견디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참조, 골 1:23). 변창할 때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역경을 겪을 때는 나무들이 폭풍 속에서 더 깊게 뿌리를 내려뻗듯 그분께 가까이 착 달라붙는다. 당신의 경우가 이와 같은가? 끝까지 견디어 내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골 1:23).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 3:14).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그분께 매달릴 것이다. 당신이 처음에 죄 많은 인간으로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렘 23:6)에 매달리며 나의 죄값을 치르신 주 예수께 나아온 것처럼 지금 어둠의 죽음 앞에서도 그분께 나아가라. 이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며, 복이 되는 것이다.

6.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법

출처: *The Whole Works of Thomas Boston: Sermons, Part 2*, ed. Samuel M'Millan, vol. 4 (Aberdeen: George and Robert King, 1849), 454-457;

저자: 토마스 보스턴(1676-1732):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이자 신학자; 영국 버윅셔의 던스 출생.

역자: 염지웅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창 24:63)

묵상은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며, 시간과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최상의 유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우선 왜 묵상이 의무인지에 대해 설명한 후, 그 주제에 관한 적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묵상이란 무엇인가? 묵상은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하나는, 경우에 따른 묵상으로서 문득 드는 생각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은 영적인 행위고, 다른 하나는, 정형화되고 엄숙한 묵상으로서 영혼이 마음을 다해 영적인 것을 생각함으로 마음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행위다. 본문의 묵상은 후자에 해당하며 이런 묵상에 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1) 묵상하고자 하는 영적인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즐거움으로 죄를 묵상하다가 조용히 지옥으로 향한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시 36:4).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세상의 것들을 묵상하며 생각을 집중한다. 그러나 바르게 묵상하고자 하는 자는 영적인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이 아닌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시 63:6; 아 1:4).

2) 다른 모든 외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의 공간은 너무 협소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동시에 집중하기 어렵고, 특히 다양한 종류의 생각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이에 다윗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시 86:11)라고 기도했다.

3) 선택한 영적인 주제에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그 주제를 이해해야 하고 마음이 움직여야 하며 마음이 변해야 한다.

이제 묵상을 적용해 보자. 나는 당신이 기도와 다른 의무에 대해서 진지한 것처럼, 묵상에 대한 의무, 특히 규칙적인 묵상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도 정직하기를 권면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묵상은 하나님의 명령인 점을 고려하라. 시인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시 4:4)고 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 묵상하라”(참조, 딤후 4:5)고 말한다. 당신이 왜 다른 의무들을 행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다른 의무들을 명령하신 그분은 묵상의 의무도 명령하신다. 그분의 모든 계명을 존중할 때 당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시 119:6).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 경우에 합당한 권위를 가진다면, 다른 모든 명령들 역시 합당한 권위를 가진다(약 2:10-11).

2) 묵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나온 증언에 의해 더욱 더 권장된다. 이삭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러하였다(시 63:6). 그렇다. 다윗은 경건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 1:2)라고 말했다.

3)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상당한 효과가 있다. 묵상은 지식을 크게 향상시킨다. 다윗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시 119:99)라고 말했다. 묵상은 고난 가운데 위안을 얻는 길이다. 다윗의 원수들이 그에게 대해서 음모를 꾸몄을 때, 그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시 119:23)라고 말했다. 묵상은 기독교인을 온유하게 만든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시 119:15). 묵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껏 맛보게 한다.

이제 나는 당신이 묵상의 과정을 바르게 진행하도록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겠다.

1) 당신이 보거나 듣는 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이를 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묵상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것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 이를 실천하였다. 성경에서는 누구보다도 농부를 통해 더 많은 영적인 교훈을 제시한다.

2) 만약 여건이 허락되면, 혹은 때때로 여건이 허락될 때, 엄숙한 묵상을 위해 홀로 있으라.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의 방해받지 않고 묵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세상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이런 저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묵상할 영적인 주제를 선택하라.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 하나님의 사랑, 죽음, 심판, 하늘과 지옥, 영원, 성령의 은혜(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등, 매우 다양한 주제가 있다.

4) 짧고 진지한 기도로 시작하라.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하거나 좀 더 엄숙하게 기도하라. 다윗처럼 기도하라. 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

5) 사탄이 당신을 산만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단호하게 묵상을 수행하라. 묵상의 주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몇 가지 규칙을 따르라. 묵상의 주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1) 주제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라. 가령, 하나님, 믿음, 사랑 등 주제가 무엇이든 묵상의 주제에 대해 설명하라. (2) 그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지 관찰하라. 예컨대 거짓 믿음 또는 거짓이 없는 믿음 등이다. (3) 원인 (4) 효과 (5) 특성 (6) 반대 속성 (7) 비교 대상 등을 관찰하라. 마지막으로 (8) 이에 관련된 성경적 증거를 고려하라.

6)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확장시켜 당신의 마음이 영향을 받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라. 여기서 충고하고 싶은 점은, (1) 적절한 감동을 얻고 당신의 영혼이 즐거워야 한다. (2)

그런 즐거움이 부족할 때 슬퍼하라. (3)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구하며 바라라. (4) 당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구할 수 없는 무능력을 고백하라. (5)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간청하라. 마지막으로, (6) 주님께서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으라.

7) 주님께 감사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당신을 주께 맡기라.

8) 묵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적인 도움을 받으라. 왜냐하면 시선은 집중을 흩어버릴 수 있기에, 필요하다면 주변을 어둡게 하거나 눈을 감으라. 혀로 종얼거리지 않으면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묵상 내용을 입으로 말하라. 본문의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뜻은 묵상하며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알기 쉽도록, 나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 죽음에 관한 짧은 묵상을 당신에게 제시하겠다.

주님, 내 생각을 붙들어주셔서 나와 및 모든 인류를 결국 무덤에 들어가게 하는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할 때 유익을 얻게 하소서. 내 눈을 여셔서 죽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소서. 오, 내 영혼아! 사망은 무엇인가? 이는 몸과 영혼의 분리다.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합쳐 놓은 서로 사랑하는 이 둘의 헤어짐이다. 내 영혼아! 생각하라. 죽음은 두 종류가 있다. 격렬한 죽음이 있고 자연적인 죽음이 있다. 내가 어떤 죽음을 죽게 될지 나는 알 수 없다. 이 각각의 죽음은 또한 여러 가지로 임한다. 내 생명이 촛불이 꺼지듯이 떠날 수 있고, 혹은 촛불이 심지가 다 타거나 기름이 떨어져서 꺼지듯이 내 생명이 병이나 나이가 듦으로 서서히 떠날 수 있다.

그런데, 사망이 생겨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요인은 내 자신 안에 있다. 나는 결국 파멸을 가져오는 수많은 질병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의 첫 번째 원인은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죄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내 영혼아! 죽음이 일으키는 결과를 보라. 이 무서운 전령이 접근해서 온 몸을 고통으로 가득 채우고, 눈을 희미하게 하며, 얼굴을 창백하게 한다. 죽음이 공격하면 숨결이 사라지고 영혼이 떠나고 육체는 생명 없는 흙덩어리로 남고, 친구들은 죽은 자가 떠남으로 산 자들의 땅에서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애곡한다. 그런데 죽음의 속성은 무엇일까? 죽음의 속성은 확실한 면과 불확실한 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즐거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끔찍하다. 죽음의 길은 오직 단 한번 갈 수 있다. 만약 그 길이 잘못된다면, 돌이킬 수 없다. 나의 영혼아,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의 달콤한 삶과 더 이상의 죽음을 맛보지 않을 영원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무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는가? 죽음은 무엇과 같으며 무엇과 비견할 수 있는가(호 13:14)? 죽음은 촛불이 꺼지거나 녹아 없어지는 것과 같다. 애굽의 간수가 바로의 빵 말은 관원과 술 말은 관원이 갇혀 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줘서, 한명은 왕궁으로 다른 한명은 교수대로 보내는 것과 같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

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라고 말씀한다.

자, 내 영혼아, 죽음이란 얼마나 끔찍한가! 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의 왕인가! 죽음을 위해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하지만 아!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도 나의 굳은 마음은 얼마나 무감각한지! 내가 반드시 느껴야 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느낌을 갖지 못하는지! 아! 내가 죽음을 느낄 수 있어서 심판에 대해 생각한다면 얼마나 현명할까! 그러나 아! 나는 내 자신조차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죽음에 대해 심각한 생각조차 가질 수 없다. 나의 마음이 죽음에 가 있기보다는 차라리 손톱으로 바위를 파헤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 간청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저를 위해 죽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죽음에 대해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께서 그것을 해주시리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저의 영혼을 맡깁니다.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저를 인도해 주소서(시 48:14). 아멘.

~~~~~

질병과 죽음은 엄숙하다. 그것들은 사람의 종교에서 모든 장식과 도장을 걷어낸다. 그것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연약한 부분을 들춰낸다. — J. C. 라일

## 7. 만약 당신이 올해 죽는다면

출처: “A Sermon on the New Year” in *Sermons on Important Subjects*, Vol. 2  
(New York: Robert Carter and Brothers, 1854), 144-147.

저자: 사무엘 데이비스(1723-1761): 장로교 목사, 미국 델라웨어 뉴캐슬 카운티 서밋 릿지 출생.

역자: 정영진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렘 28:16).

올해 당신은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올해 당신의 죄로 죽으면, 당신은 삶의 모든 즐거움에서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환희와 즐거움, 매혹적인 오락과 땅의 헛된 즐거움과 이별(영원한 이별)할 것이다. 감각에서 얻는 모든 즐거움과 욕구의 모든 만족과 이별할 것이다. 올해, 태양이 당신을 향한 빛을 잃고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면들이 암울한 공백이 될 수 있다. 당신에게 음악은 모든 매력을 잃고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미각의 모든 만족도 사라질 수 있다. 차가운 무덤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을 덮고 있는 진흙처럼 모든 감각에 대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와 명예의 모든 거만하고 공허한 쾌락과 이별할 것이다! 이번 분기의 기쁨과 기대의 즐거움은 모두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다 아니다.

만약 당신이 올해 당신의 죄로 죽어야 한다면, 당신은 기쁨도, 즐거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용량과 행복을 향한 강한 갈증은 계속될 것이다. 아니, 당신의 본성(개선된 상태에서)은 행복을 향해 더 강력하고 격렬해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실제로든 상상으로도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행복의 용량은 불행의 용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쾌락의 상실은 확실한 고통이 될 것이다. 최소한의 만족도 없이 강렬한 욕망과 함께 굶주림으로 영원히 괴로워하는, 무한한 선을 향유하도록 지어진 피조물보다 더 비참한 존재를 상상할 수 있을까? 최고의 선으로부터 즉시 추방되었고, 임시적으로 있는 모든 피조물의 즐거움에서도 추방되었다. 그런데 이 일이 다음 해의 짧은 기한내 당신의 경우가 될 수 있다. 오! 얼마나 끔찍한 변화인가! 얼마나 엄청난 추락인가!

만약 당신이 올해 당신의 죄로 죽어야 한다면, 당신의 모든 희망과 장수에 대한 기대는 무산될 것이다. 우리 중 몇몇은 교육을 받고 세상의 무대에 오르기 위한 준비 중이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에게 이루어질 활력 있고 장엄한 꿈을 꾸며 기뻐할 것이다. 당신은 평생 여러 단계로 달성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그것으로 얻을 기쁨, 이익, 명예를 이미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멋진 희망에 애정 어린 부모, 친구 그리고 선생님들은 큰 기쁨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아! 올해 초기에 급격한 변화로, 이 모든 낙관적인 기대와 즐거운 전망이 연기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젊음의 시절은 약속 및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꽃은 시들고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 아마도 멋진 희망을 갖고 계획을 한 후, 훌륭한 교육을 받느라 많은 고생과 비용을 치른 후, 안타깝게도 공개적인 결실을 얻지 못할 수 있다. 혹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더라도 환영처럼 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확실

히, 당신은 당신의 시야를 삶의 한계를 넘어 확장해야 한다. 실망이라는 위험 없이 당신의 소망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저 세상까지 당신의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올해 당신의 죄로 죽어야 한다면, 당신은 인생의 모든 멋진 미래와 단절될 뿐만 아니라 모든 희망에서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당신은 영원토록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점점 더 커지는 불행 외에는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및 죄의 치명적인 결과 외에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있는 절망의 상태에 이를 것이다. 장래를 촉망받던 젊은이가 산 자들의 땅에서 단절됨으로 인하여 희망의 정상에서 영원한 절망의 늪으로 떨어지고, 나아가 인생과 내세에서 쓸모없고 소망 없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친애하는 나의 젊은이여! 이것이 당신의 처지일 수 있다. 당신이 당신의 죄로 올해 죽어야 한다면 바로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다!

만약 당신이 올해 당신의 죄로 죽어야 한다면, 당신이 지금 누리는 자기만족,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는 것, 생각 없이 얻는 모든 편안함과 즐거움 등은 모두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당신의 상태가 최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만족의 은밀한 자아 찬사는 영원히 잠잠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반복되는 완고함으로 무감각해졌던 양심은 다시 완전하게 깨어날 것이다. 당신의 학대로 인해 격앙되었던 양심은 당신의 영원한 고문자가 될 것이다! 그 양심은 당신을 영원히 비난하고 질책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자책하는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의 모든 과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떠한가! 두렵지만, 최고 재판관의 정죄 선고에 기꺼이 동의하며 스스로 어리석은 자, 죄인, 비천하고 더러운 가련한 자, 온 세상과 자기 자신의 대적, 자기파괴자, 모든 행복한 존재들이 있는 사회와 모든 행복으로부터 버림받은, 비열한, 추악한, 쓸모없고, 비참하고, 영원히 절망적인 피조물이 되는 상태는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데 당신이 그런 상태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하면 놀랍지 않은가?

만약 당신이 올해 당신의 죄로 죽어야 한다면, 당신은 구원의 모든 수단을 영원히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수단은 현재 세상에 국한되어 있고, 영원한 형벌의 세상에는 설 자리가 없다. 거기서 거룩한 율법의 천둥소리가 울리지만, 복음의 부드러운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거기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먹이를 찢지만 결코 죽임당한 어린양, 죄를 위한 구속, 죄인의 구주는 나타나지 않는다. 거기서 양심은 회개로 인도하는 치유적 고통을 일으키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절망의 공포만 가져올 뿐이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지만 죄인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스러운 감각의 샘이 다 열리고 죄인의 모든 비참의 샘들이 열린다. 그곳에서 자비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며, 정의만이 지독한 엄격함 가운데 통치한다. 그곳에서 거룩한 성령은 더 이상 정결하게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러나 죄와 큰 아바돈(Apollyon, 파괴자, 사탄의 이름)은 치명적인 독을 퍼뜨린다!

한 마디로, 시험 많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현재 상태의 모든 훈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특혜, 은혜의 모든 수단, 그리고 모든 소망의 격려는 당신으로부터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결

과적으로, 당신의 구원의 가능성은 영원히 제거될 것이다. 구원을 위한 필요한 수단이 제거되면 구원은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만약 올해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대한 당신의 모든 희망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

열쇠를 넣어 죽음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모습은 당신을 무덤의 공포에서 건져줄 것이다.

— 찰스 스펀전

8.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

출처: 『청교도들이 병든 자와 죽어가는 자를 대하던 방법』 (*The Puritans on How to Care for the Sick and Dying*), (CreateSpace: 2011), 62-69.

저자: 크리스토퍼 보고쉬

역자: 김현준

인간이 죽을 확률은 100퍼센트다.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실 수는 있지만 죽음은 피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이 고치셔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도 어느 날 죽고 말았다.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날 죽을 것이다.

의학의 힘을 빌려도 항상 헛수고에 그칠 것이다. 의학을 신봉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없다. “죄의 삯”(롬 6:23)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이끌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이는 영혼의 원수들의 공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병들어 임종을 맞이할 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실상 신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당신이 기도하는 골자는 달라야 한다. 단지 치유와 회복만 구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기도할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증거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라. 요동치 않는 믿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결부된다. 둘째, 죄악 된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록 기도하라. 몸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영혼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되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셋째, 신자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믿음으로, 곧 끝까지 오로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만 꼭 붙들고 믿음으로써,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제 처음 두 가지 요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는다는 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그 닷을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두는 것과 같다. 병든 신자가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큰 싸움을 치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죄는 우리의 몸을 부패시킨다. 그 결과, 생화학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우리의 정신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 모든 정신적인 궤변을 일으킨다. 그래서 모든 부적절한 생각과 감정과 흥분이 일어난다. 우리의 마음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 우상숭배와 부도덕을 행하고, 창조주를 거역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적 사탄과 마주한다. 사탄은 이렇게 뿌리 깊은 부패성을 미끼로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늘 기회를 엿본다(벧전 5:8). 그러므로 저주 같은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몸과 정신과 마음이 약해지고, 사탄이 공격을 가하려 덤벼드는 일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자의 몸과 정신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각 신체의 기관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끊기면 당황, 혼수상태, 마비, 흥분된 신경, 무기력이 생기고 급기야 다른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신체 기관이 손상되면 명료한 정신도 흐릿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은 증거들도 모호하게 느낄 수 있다. 믿음은 사실 추상적인 사교영역에서 활동한다. 그런데 불안과 공포와 침체와 신경계통의 무기력과 정신계통의 무기력이 발생하면 생각이 흐려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지식을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의약품과 의술과 수술 방법 등이 신체가 안정되고 정신이 명료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이런 수단에 복을 베푸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신자의 영혼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증거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자가 자기 부인을 실천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렇게 되면 우상숭배적인 생각으로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신자가 병과 몸의 고통과 괴로움에 집중하기보다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신자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기 연민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직 자기 부인의 실천만 있을 뿐이다.

최강의 적은 사탄이다. 사탄은 엄청난 사기꾼, 거짓말쟁이, 살인자다.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늘 기회를 엿본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허약함을 미끼로 삼는다.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 인간의 부패성을 사용하는 일에 전문가다. 사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들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의심을 품게 한다. 사탄이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나?”가 아니었던가?(창 3:1) 그는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이 말한다. 곧, 사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신자를 공격할 때 이 짧은 한 마디의 말로 그 신자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나가도록 꼬치꼬치 따진다.

몸이 아프면, 사탄은 신자가 고통에만 치중하게 만든다. 사탄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공격을 시도한다. “고통을 견디어도 효과가 없다. 이제 고통을 끝내라! 합법적으로 네 자신을 안락사 시킬 방법도 있다. 그 방법을 취하라. 대관절 어떤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고통 받는 것을 바라시겠느냐?” 아니면 양자택일을 하도록 사탄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설마 죽으면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정말 그럴까? 천국은 허구다! 삶은 현실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사용해볼만한 약물도 있다. 한 번 시도해보라. ‘강한 삶을 살아야지!’ 이 육체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네 능력껏 모든 것을 해보는 거다. 하나님도 어떻게든 네가 낫기를 바라신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시도하다가 네 몸과 가족을 망하게 할지라도 괜찮다.”

신자의 정신적인 영역과 영적인 삶에서 사탄은 의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든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다. “이보게, 친구. 염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자네는 죽어가고 있어. 자네가 믿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야. 예수? 구원? 모두 헛소리야! 친구, 한 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자네가 이 지경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야. 자네는 구닥다리 책에서 말하는 공허한 약속에 ‘터무니없는 소망’을 두었군 그래.” 반면에, 사탄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지옥은 정말 있어. 그런데 바로 자네가 그리로 가게 될 거야! 자네를 보라고. 자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네 꼴 좀 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침체되어 있고, 근심에, 몸은 아프고, 또 여태껏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고 있다니! 하나님은 자네

같은 사람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걸세. 사실, 하나님은 자네를 미워하고 계셔!” 사탄은 이런 식으로 속삭일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오만가지 말을 고통 중에 있는 신자의 귀에 흘려 넣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사탄의 연막을 꿰뚫고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신들의 구원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증거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병 중에 있는 신자들이 비록 걸사람은 후패하고 있을지라도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또한, 하나님이 자녀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2-13).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왜곡하게 되고 인간의 계획에 찬동하게 되며, 사람들과 기관들만 맹신하게 된다. 그 결과, 내주하시는 성령은 근심하시게 되고, 성령의 능력은 물러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몸은 이런 결과들 때문에 고통하게 된다(고전 11:30-32). 영혼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고, 대신 쓰라림과 분노와 근심과 죄책감과 불안과 동요와 혐오감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경건하지 못하게 되고, 위선적이고 자아를 치켜세우는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병에 걸린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중요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곧,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촉진함으로써 이런 그릇된 상태에서 벗어나 확실한 경로를 밟아가도록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어야 한다.

걸사람이 죽어갈지라도 특별히 속사람의 영적 갱신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 죄의 속박과 우상숭배와 사탄과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난다. 영적 갱신의 과정은 전인(全人)적으로 이루어진다. 외관상, 우리의 신체는 낡아지지만, 바울이 쓴 것처럼 내적인 면에서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고후 4:16).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질병과 고통과 정신적 외상과 부패와 죽음과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거치게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영혼에 역사하는 성령의 권세 있는 영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사람의 본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창 1:27).

또한 영적 갱신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로 이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요한처럼 기도하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최종 목적은 바로 영화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 그 위대한 날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날까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할 것이다(롬 8:23). 그 위대한 날에 몸과 영혼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믿음과 소망은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며 사랑을 아무 방해 없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은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넘어, 미래의 평안과 안식과 축복과 영화를 누리는 데까지 미쳐야 한다. 기도할 때 근시안적으로 하면 안 된다. 죽음에만 집중하지 말고 저 멀리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는 데까지 내다보아야 한다. 그렇다. 죽음을 맞아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하고(중간 상태), 시대의 종말이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결과,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기도하는 자는 영원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지경은 전 세대, 모든 시간을 아울러야 하며, 신자가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영원한 영화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 말한다. 사도 요한도 바울이 한 말을 반복한다. 하지만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영광의 모습이 어떠한지 설명한다. 요한이 설명한 내용은 이렇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2). 요한은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 그대로이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신비로운 변화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곧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동시에, 일순간에 일어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전 15:51-52).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신자들은 자신들의 몸과 영혼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것이며, 죽은 신자들의 몸은 무덤에서 일어나 더 이상 육체와 분리되지 않는 영혼을 받게 될 것이다. 신자들은 원래의 몸과 같은 몸을 소유하게 되지만, 엄연히 다른 종류의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몸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말한 것처럼 영화롭게 된 몸은 불멸하는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현재 우리의 몸은 썩어가고 있고 부패해가고 있다. 하지만 영화롭게 부활하는 몸은 불멸하는 몸이다. 영원히 원기가 있고, 완전한 건강과 악동하는 생명도 영원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죽음은 인간의 생명에 치욕을 안겨주는 궁극적인 형태다. 성령은 기적적으로 이렇게 죽은 똑같은 몸, 부패하고 치욕을 입은 몸을 변화시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몸으로 일으킬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의 하반 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다. 우리의 몸은 약하고 부서지기 쉽다. 하지만 그 날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능력 있는 몸으로 일으켜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허약함과 약한 것에

매이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라고 말한다. “육”의 몸은 죄 때문에 일시적이고 결함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가 되면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성령을 소유한 “초자연적인”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듯 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영원히 영화롭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오래도록 지녀야 할 소망이다.

~~~~~

신자가 죽었다고 해서 마냥 울 것이 아니라, 신자의 죽음이 최고로 값지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라. 신자들에게 죽음은 가장 값진 유익이다.

- 토머스 브룩스(Thomas Brooks)

## 9. 죽고 싶지 않다면?

출처: *The complete Works of Thomas Brooks*, ed. Alexander Balloch Grosart, Vol. 1 (Edinburgh: London; Dublin: James Nichol; James Nisbet and Co.; G. Herbert, 1866), 451-463.

저자: Thomas Brooks(1608-1680): 영국 비국교도 청교도 설교자이자 회중파 지지자, 번힐 필즈에 묻힘.

역자: 조상철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글을 통해 당신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소망하게 되어 당신을 위해 하늘에 예비된 모든 것이 온전히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이제부터 다음 질문에 답해보기 바란다.

**죽음이 당신과 그리스도 사이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끊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롬 8:35-39). 그렇다면 죽을 때조차도 그리스도와와의 결합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왜 당신은 죽고 싶어 하지 않는가? 죽을 때에도 사울과 요나단은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듯이(삼하 1:23), 죽을 때 신자와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고 더욱 밀접하고 확실히 연합된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지만, 반대로 살아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다. 반죽 속에 섞여 있는 효모(누룩)를 반죽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단 반죽에 섞인 효모는 반죽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다. 연합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마치 반죽과 그 속에 들어 있는 효모와의 관계와 비슷해서, 생사를 떠나 한 번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요 17:20-21; 요15:1-6).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여! 누가 죽는 것을 마다하겠는가?

**죽음이 그리스도의 영과 당신의 믿음으로 맺어진 결혼 관계를 끊거나 없앨 수 있을까?** 안 된다. 죽음은 그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다(호2:19-20).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와 당신의 영혼 사이에서 맺어진 결혼 관계가 굳건히 유지된다면(마 25:1-2; 롬 7:1-4), 왜 당신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가? 죽음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 맺어진 결혼 관계가 끝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죽음과 사탄은 그리스도와 믿는 영혼 사이에 맺어진 결혼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죄는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맺어진 결혼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들어온 죽음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죄가 죽음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죄가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에 맺어진 영광스러운 결혼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죽기를 꺼려해서는 안 된다(예 3:1-5, 12-14).

**그리스도인들이여! 죽음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언약을 폐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렘 32:40).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마22:30-32).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럼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왜 죽기 싫어해야 하는가?

다윗은 침상에 누워 죽음을 앞두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고백한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삼하 23:5). 그는 그 언약을 통해 죽음 앞에서도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이 살았든 죽었든 그 언약은 당신과 주님 사이에서 굳건하고 유효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죽기를 꺼려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고, 두 번째, 거짓말을 못하시며, 세 번째, 자기 자신이나 그의 백성과 맺으신 은혜로운 언약을 부인하지 못하신다. 그러므로 죽음은 은혜를 입은 영혼에게 끔찍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매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사랑을 없앨 수 있는가?**(시 116:15; 신7:7-8) 그럴 수 없다. 죽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한 어떤 행위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롭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사랑의 모든 동기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의 사랑도 영원하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로 너를 이끌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렘31:3; 요한 13:1; 사 54:8-10).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요 11:11).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죽음은 주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의 소중한 사랑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다. 그렇다면 죽는 걸 왜 두려워하는가? 죽음을 통해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죽기를 바라마지않는 것인가?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사라지지도, 썩지도, 차갑게 식지도 않는 사랑이다. 솔리누스(Gaius Julius Solinus, 고대 로마제국의 라틴어 문법 학자이자 저술가)의 저서에 나오는 알베스토스 바위처럼 주님의 사랑은 한 번 뜨거워지면 그 어떤 것도 식힐 수 없다. 죽음은 오직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영혼의 결합을 더할 뿐이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 앞에 경악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

**너 하나님을 믿는 영혼이여, 죽음이 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뺏을 수 있을까?** 죽음이 하나님과의 화목, 받아들여짐, 칭의, 양자됨, 속량의 은혜를 빼앗을 수 있는가(고후 5:18-19)? 그럴 수 없다. 죽음은 이 은혜의 선물 중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9).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죽기를 원하지 않는가? 죽음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고귀하고 은혜로운 선물들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앞에 죽음은 아무런 힘도 없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

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5-57)라고 외쳐야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준비된 안식으로 인해, 이 위대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거룩하게 죽음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래야 한다. 마지막 숨을 내쉬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 전에, 당당하게 촛불을 켜고 미소를 지으며 "죽음아 오너라"라고 하며 거룩하게 죽음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위대한 사도들이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딤후 1:12).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선물들을 죽음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마치 식사하듯이 그들은 편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당신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는가?** 그렇다. 그리스도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히2:14-15). 그럼 왜 당신은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가진 모든 권능을 무장해제 시키시고 그것이 쏘는 것을 없애 버리셔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는가(고전15:55-57)? 그렇다. 그럼 왜 죽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는가? 비록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버리더라도, 그분만은 당신 곁에 서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 죽음도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 죽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시23:4; 히13:5-6). 그럼 왜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인가? 무서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죽음은 단지 당신이 있을 장소가 변하고, 함께 하는 이들이 바뀌고, 해야 할 일이 달라지고, 또한 즐거움이 바뀌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우리에게 죽음은 단순한 변화에 불과하다. 그것도 가장 행복한 변화다(욥14:14, 요 11:26, 살전4:14). 죽음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누더기를 예복으로, 십자가를 왕관으로, 감옥에서 보좌로 옮기는 것과 같다면, 왜 죽기를 꺼려해야 하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우심으로 무덤이 거룩하게 되고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지 않았는가? 그의 피와 죽으심으로 인해 당신에게 무덤은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믿는다. 그럼 왜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이 잠깐 잠을 자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무덤에서 꺼내 주시지 않겠는가? 그가 당신에게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시지 않겠는가? 당신이 잠시 쉬고 있는 그 휴게실, 무덤에서 당신을 불러내 영생과 영광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요한6:39-40; 고전15; 살전 4:14-18). 그럼 왜 죽고 싶어 하지 않는가? 이 모든 설명에 따르면, 언제라도 거뜰히 기꺼이 기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을 위해 하늘에 예비된 것들에 당신의 소망과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느낄 수도 없을 것이다.

**죽음은 모든 육체적, 정신적 질병, 즉 지근거리는 머리와 언제라도 멈출 수 있는 심장, 질병에 걸린 몸과 타락한 영혼 등을 단번에 치료해 줄 것이다.** 지금 당신의 몸은 온갖 종류의 고통, 통증 그리고 질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줘야 할지,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패역하여 영적으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

로 맞은 흔적뿐”(사1:6)이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똑 같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죽음은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치료할 것이다. 죽음은 당신 자신도, 친구도,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뛰어난 의사라도 해줄 수 없었던 것을 당신에게 해줄 것이다.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치료해 줄 것이다. 영국 메리 여왕시절 스트랫포드 보우(Stratford-Bow)에서 절름발이 남성과 맹인 남성이 화형을 당했다. 절름발이 남성은 쇠사슬에 묶인 후 그의 목발을 내던지며 맹인 남성에게 위로하며 말했다. “죽음이 당신의 보지 못함도 나의 절뚝거림도 치료해 줄 것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죽음은 당신의 모든 악점,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럼 왜 죽고 싶어 하지 않는가? 세네카의 가이우스 마이케나스(Gaius Maecenas, 로마 옥타비아누스의 친구이자 정치 고문)는 죽기보다는 차라리 많은 질병 속에서 살고자 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해 당신에게는 죽음 이후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 당신의 모든 육체적 질병을 치료해 주듯이, 당신의 영혼의 질병 또한 치료해 줄 것이다. 죽음이란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죄의 죽음이다. 죄로 인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죽음으로 인해 죄는 끝나게 된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임무로도, 받은 모든 은혜로도, 그의 모든 경험으로도, 그리고 모든 규례로도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것이다. 죽음은 단 한번에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모든 죄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에 의해 죄가 떠난다. 새끼 벌레가 자기를 낳은 어미 벌레를 죽이듯, 죽음은 자신을 낳은 죄를 죽인다(히12:23; 롬6:7; 고전15:26).

이렇듯 죽음이 그들의 몸과 영혼이 겪는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 고통과 통증, 슬픔과 괴로움, 질병과 질환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기를 꺼려하는가? 죽음은 분명하고 완벽하게 육체와 영혼의 모든 병들을 단번에 치료해 줄 것이다.

**신자에게 죽는 날은 가장 좋은 날이다.** 그런데 왜 죽기를 꺼려해야 하는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전7:1). 유익, 즐거움, 평화, 안전, 동행, 영광의 측면에서 볼 때, 신자에게 마지막 날은 최고의 날이다. 그렇다면 왜 신자는 죽기를 원하지 않는가? 이 글을 통해 신자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증명해 보았다. 계속해서 당신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다.

**신자들이여! 죽는 날이 당신의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다(요 11:26).** 이제 당신은 죄, 사탄, 세상,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악, 그리고 죽음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이겨낼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라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당신도 이미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인으로서 선택 받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가장 위대한 거래를 하셨다. 그는 공인으로서 선택 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그는 공인으로서 그의 모든 소중한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며 지금도 공인으로서 하늘에 앉으셔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대표하고 계신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니”(엡2:6). 그리스도께서는 미리 하늘에 그의 자녀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미리 그들의 이름으로 하늘을 소유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골2:15) 바로 그때, 그는 공인으로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대신하여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 또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신자들은 이미 승리하였다. 그렇다.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통, 그의 임재와 다스림 그리고 중보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은 살아 있는 이 순간에도 항상 승리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2:14).

이제 신자들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다. 그들은 세상과 육신과 모든 악에 대해 승리했다. 이그나티우스가 말하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셨기 때문에 사탄은 ‘십자가’라는 말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싫어하며 그 앞에 그저 벌벌 떨 수밖에 없다.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사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간청함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훌륭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세상과 육신과 악에게 패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아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그리스도인은 사탄에 승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사탄에 패배하게 된다(롬7:14~25). 신자는 죄의 법에서 풀려났다가 곧 다시 그 법에 사로잡힌다. 오늘은 사탄을 이겨서 쫓아내지만 다음날 사탄이 새로운 힘, 새로운 유혹, 새로운 육신의 정욕으로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자주 패배하며 쓰러진다. 사탄과의 많은 전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하여 다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육신과 악에 대하여 전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준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이 모든 적들의 목을 밟고 서 있다. 이 적들은 영원히 무장해제 되어 더 이상 신자들을 향해 저항할 수도, 타격을 줄 수도, 도전하여 맞설 수도, 신자들을 다시 사로잡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왜 신자들은 죽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해야 하는가? 이렇듯 그들이 죽는 날은 그들이 승리하는 날이지 않은가?

**신자여, 당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불리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렘23:6; 고전1:30).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악하고 불완전한 당신의 의가 아니라 순수하고 완벽하며 흠잡을 데 없으신 그리스도의 의 덕분이다. 죽음을 맞이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편안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시45:13). 왕의 딸이 영광을 누리는 것은 그녀가 궁중 안에 거하며 왕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시45:13). 어떤 이들은 귀중한 보석들을 달고 금테를 둘러 만든 그 옷을 생각하며, 그것이 너무 화려하고 영광스러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를 예표한다고 말한다(출28:11, 14, 39:1-5). 이 금으로 만든 옷은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의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찬란한 황금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흠도 점도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신자는 죽기를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는가? 이 금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은 당신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 이 황금 옷,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옷은 마치 처음부터 신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들의 몸에 꼭 맞다. 그 어떤 옷도 이 옷과 비교될 수 없다. 디오니시우스가 카르타고인들에게 100달란트에 팔았던 값비싼 알키스테네스(Alcisthenes)의 망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입혀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옷에 비하면 형편없고 보잘 것 없는 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다음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해야 한다. "내가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시 71:15-16, 19). 자신의 죄와 자신의 의로 인해 기껏해야 "더러운 옷"(시 64:6)을 입은 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야 죽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리스도인들은 죽기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기보다 오히려 죽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다(고전 15:55-57). 왜냐하면 당신은 영광스러운 의로 옷 입었기에 죽음도 거뜰히 견디고, 용감하게 헤쳐 나가 죽음에 당당히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린 채 서 있게 해주는 흰옷이다(계 3:18).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계 19:7-8). 여기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헬라어로 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이라고 불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로 이해한다. 의는 히브리 특유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의를 의미한다. 흰색은 자연스러운 색이다. 그것은 순결과 광채(빛)와 영광의 색이다. 드루시우스(Johannes van den Driesche, 1550-1616, 플랑드르 지방의 개신교 신학자)와 다른 이들이 말하듯이 흰색은 과거 고귀한 사람들의 옷을 뜻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죽기를 꺼려해야 할까? 여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티끌 하나, 점 하나 없는 세마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무서워 피하거나 저항하기보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이다.

~~~~~

그것을 의지하라. 당신이 죽는 시간은 당신이 아는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다. 당신의 마지막은 당신의 가장 풍요로운 순간이 될 것이다. 당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나은 날은 바로 당신이 죽는 날이다. 그것은 천국의 시작으로써 영원히 태양 빛이 함께할 것이다. 살아 계신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라. - 찰스 스펔전

10. 보배로운 성도의 죽음

출처: 『보배로운 하나님의 일들』 (*The Precious Things of God*)

저자: 옥타비우스 원슬로(1808-1878): 비국교도 목사로서,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성장했고, 바쓰(Bath)의 애비(Abbey)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역자: 김현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시 116:15).

참된 신자는 주님 안에서 죽는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께 기쁘고 보배로운 것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계 14:13)라는 말씀에는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불신자는 죽음을 가장 끔찍한 일로 생각한다. 회심하지 않은 독자들이여! 그리스도 밖에서 죽어 다음 세상으로 가느니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 가운데 태어난 그대로 저주 아래 있다가 영원히 정죄된 상태로 죽을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오, 죄와 죄책을 짊어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반목하며, 손으로는 반역의 무기를 쥔 채, 죄를 사랑하며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은 세상의 노예로 있다가 “공포의 왕”과 마주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지만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죽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죽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죽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신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다”(계 14:13)는 말은 참으로 복되고 명료하고 절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요 21:19).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죽음을 맞는 엄숙한 시간에 주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살면서 은혜로 고난을 견뎌기에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그분의 약속을 믿은 믿음, 그분의 구원을 바라는 소망, 그분의 뜻에 인내로 복종했던 것과 이 세상을 떠나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해지려는 열망, 그분과 영원히 있고 싶은 마음이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장면이 연상되지 않겠는가?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가 그 엄숙한 순간에 자신의 고귀한 영혼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며 마지막 숨을 내실 때, 그래서 모든 개념을 초월하는 영광이 그리스도께로 모아질 때 그는 이렇게 외칠 것이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시 31:5).

실로,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 보배로운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이 성도들의 영혼을 자기에게로 모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 보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얼마나 간절

히 바라시는가! 그분은 성도들을 그 정도로 가까이하시고 보배롭게 생각하신다. 주님은 산고를 통해 낳은 모든 영혼, 주님의 우리에 있는 모든 양들, 보석 상자에 들은 모든 보배로운 보물들이 그분의 보좌를 둘러싸고, 그분 주변으로 모여 보석이 박힌 주의 왕관에 주렁주렁 가득 달려 찬란한 빛을 발할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다. 그 날에는 주님의 가족 중 갓난아이 하나라도, 우리 안의 어린 양 한 마리라도, 왕관의 작은 보석 하나라도 결코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소중히 간직하신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얼마나 복된 진리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인가! 연약한 성도들, 의심하던 신자들, 타락했다 회복한 자들이 모두 다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손(마 9:20)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것이고, 어렵פות이 주님의 십자가를 본 눈으로 모든 찬란한 광경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혀는 찬양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두려움으로 떠는 신자들이여! 의심하고 무서워하는 신자들이여!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보배롭게 생각하신다! 당신은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그곳에 당신을 위한 왕관이 있고, 당신이 거할 처소와 쉴 곳이 있다. 죽음을 맞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당신의 행복한 영혼은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다. 천사들이 다같이 자신들의 날개를 부딪치면서 환호하고, 하늘나라의 모든 가족들이 황금 수금을 통기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환영합니다! 드디어 집에 오셨군요!”

이렇듯 당신은 예수께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다. 당신은 예수께서 고통 가운데 낳은 열매, “값진 진주”(마 13:46)이며, 그분은 자신의 가장 보배로운 피로 당신을 사셨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당신을 보존하신다.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가슴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분의 미소에 취하게 하시며, 그분을 찬양하게 하고, 낮이고 밤이고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는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죽는 것이 사망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성도가 임종하려는 방에 가보라. 발소리를 죽이고 엄숙한 장면이 펼쳐질 신성한 장소로 들어가 보라. 그곳은 영광의 경계가 있는 곳, 천국 문이 열리는 곳이다.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천상의 존재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 천사들과 영화롭게 된 영혼들이 침상 위를 배회하고 있다. 성삼위 하나님도 거기에 계신다. 성부 하나님이 자신이 입양한 자녀를 지켜보시고,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구속하신 영혼을 붙들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손수 성전으로 만드신 그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고 계신다. 이것이 과연 죽음의 방일까? 이것이 과연 마지막 원수인 죽음과 마지막으로 싸우는 광경일까? 죽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침착한 정신, 기쁨으로 가득한 영혼, 영혼을 비추는 광채, 믿음의 승리, 죽지 않을 것이 죽을 것을 정복하는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승리, 이것이 과연 죽음일까? 들어 보라! 천사가 말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어디서 이러한 선율이 나오는가? 바로 세상을 떠나는 성도의 목소리가 아닌가! ... 일순(一瞬) 모든 것이 조용해진다! “은 줄이 풀리고”(전 12:6). 숨을 헐떡이는 영혼이 곧바로 노래의 날개를

타고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존전에 순식간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안식을 취한다. 이것을 죽음이라 부르지 말라. 이것은 생명이다! 이것을 파멸이라 부르지 말라. 이것은 영혼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 순간이요, 이때 영혼은 새로운 젊음을 되찾는다. 부연하자면, 거듭난 피조물은 이때 경이로움과 영광과 고귀함을 나타낸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승리와 영광과 기쁨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덕분이다.

성도의 죽음이 보배로운 또 다른 이유는, 죽음을 통해 모든 슬픔과 고난과 연약함과 질병과 죄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모든 악의 끝이요, 모든 선의 시작인 것이다. 오, 보배로운 죽음이어! 우리를 붙잡아 맨 타락의 마지막 고리를 끊어놓는구나! 죄의 마지막 차꼬가 깨지고, 마지막으로 급하게 내쉬는 탄식 속에 마지막 눈물이 마른다. 그리고 죄와 슬픔이 없는 곳,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있는 곳, “흠 없는”(계 14:5)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구나! 오, 그리스도께 조금이라도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그곳을 동경하여, 아직 이르지 못한 그곳을 향해 지칠 줄도 모르고 끝없이 한숨을 내쉬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 때문에 그의 갈망은 더 강렬해진다! 여기 이곳에 지구가 있고 저기 위에 하늘나라가 있구나! 여기 이 땅에 죄가 있고 저 위의 나라에 순결함이 있구나! 여기 이 땅에 수고가 있고 저 위에 안식이 있구나! 여기는 슬픔이 끊이지 않지만 저 위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구나! 여기가 망명지라면 저 위는 고향이다. 이곳에 불완전한 성도들이 있고 저 위에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히 12:23)이 있다. 이곳에는 이별과 변화가 있고 저 위에서는 이 땅에서 맺은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히 지속되며,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정착하고 산다! 오, 이러니 어찌 당신의 영혼이 험뎌이며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하늘나라에 가기를 갈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죽음이 보배롭다는 주제에 집중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이 죽음의 주제만이 가장 탁월하고, 이것만 열심히 묵상하고, 당신의 사고와 기대도 죽음의 문제에만 고정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도의 죽음 외에, 주님의 재림도 장엄한 주제이자 “복스러운 소망”(딤후 2:13)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도 믿고 묵상해야 할 주제로 제안하신다! 깨어 기도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위대한 원동력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죽음은 두렵고 우울하고 불쾌한 저주다. 죽음은 아무리 즐겁고 매력적인 관점에서 봐준다 해도 굴욕적인 경험이다. 죽음은 패배, 분리, 변화, 쇠퇴이며, 영혼이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신비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두렵고도 엄숙한 경험이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주님의 재림에 맞춰보라. 얼마나 다른 광경인가! 그것은 영광과 승리와 재회이며, 정복자의 강림이요, 구세주의 나타나심이며, 친구의 방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임박할 때, 죽음이 그리스도께 보배로울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이보다 더 강력하고 보배롭고 더욱 동기부여가 되고 더 사랑스럽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 신자를 깨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하신다. 다음의 말씀은 얼마나 인상적인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전 1:7).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전 3:13). “그러

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약 5:7, 8).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13).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8).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이것은 정말 교회의 운명과 소망과 열망과 미래가 걸려있는 것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가 아닌가? 그 장면을 깊이 숙고해보라. 어떤 대가(大家)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첫째, 그리스도의 강림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바라는 것을 모두 드러낼 것이다. 곧, 성도들을 구속하시고 양육하시고 보존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겸손이 아닌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종이 아닌 주권자로서, 사랑으로 중재하시는 제사장과 권위 있는 왕의 위엄을 모두 겸비하신 모습으로 ‘자신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속 6:13). 우리는 지금까지 못 보았던 사랑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요일 3:2). 우리는 아직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벧전 1:8). 우리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모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마리아의 아들이 되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권능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다음으로, 우리는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발아래 놓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인 사탄은 밖의 어둔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 인간들 사이에 거하면서 세상을 다스렸던 모든 악한 천사들도 사탄과 함께 쫓겨날 것이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무덤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했던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전 15:54).

그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창조된 후에 성도가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한데 모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다 함께 서서 육신을 입은 채 하나님을 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족장들, 선지자들, 사도들, 영광스러운 순교자들, 구속받은 우리들을 주님이 데리고 나오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제 쓸쓸한 이별은 없고,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만나고, 영원한 연합을 이룰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신령한 사람들과 그들의 사랑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될 것이다.

그다음으로, 이렇게 연약한 육체, 죄와 사망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처럼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죄악 된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으며,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고’(고후 5:4),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고전 15:43).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강해지고, 조화를 이루고, 일치될 것이다. 곧, 완벽한 사람, 거룩한 사람, 모든 것을 구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

이다.

그다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주님의 보좌와 왕관과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 배석 판사가 되고, 주님의 능력을 입은 대리인이 되어 주님과 함께 나라들을 다스리며, 이 땅에 남아있는 종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때의 우리의 존재 양식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분명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곧, 우리는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처럼 될 것이다. 주님은 부활 후에도, 심지어 그 이전에도 물질적인 장애 없이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면서 물질 세계를 다루셨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즉, 권위를 받아 자연과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렸던 왕 같은 아담처럼 될 것이다. 지상에서 움직이는 피조물들은 왕 같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세상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연이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사회가 적합한 복된 상태를 회복할 것이다. 즉, 모든 곳에서 평화와 친절과 온유함이 회복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고 그분을 복되다고 일컬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9).”

그러므로 이 장면도 보고, 저 장면도 보라. 그리고 말해보라. 어느 것이 가장 즐겁고 매력적이며 소망적인가? 어느 것이 근심스러울 때 위로가 되고, 시련을 잘 견디게 하고, 공격을 당할 때 방어를 잘 하며, 투쟁할 때 용기를 주고, 봉사할 때 활력을 주며, 거룩을 촉진시키는가?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포의 왕이 다가오는 때인가? 혹은 우리의 크신 구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인가?(딤후 2:13) 어느 것이 우리 영혼의 미래에 복음적인 기대와 소망의 영광과 빛을 더 환히 비추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자. 흘러내리는 옷을 허리띠로 묶고, 꺼져가는 심지를 잘라내고, 떨리는 팔에 힘을 주고, 의기소침해진 마음을 추스르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친히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모든 만물이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곧 주님의 병거를 보게 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슬픔과 탄식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황홀한 사랑에 빠질 것이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눅 12:35-37). 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매달리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 죽으라!

~~~~~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24-26).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였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빌 1:21-23).